

2014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국어 A형 정답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해설

1. [출제의도] 화자의 발화 의도를 평가한다.

㉠에서 화자인 작가는 청자인 교수와 공유하는 경험, 즉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에 대해 언급한다. 작가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고 있다는 것은 ㉠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그리고 경험 얘기는 교수와 경쟁하려는 의식을 드러내려는 것도 아니다.

2. [출제의도] 보조 자료의 매체적 특성을 추리한다.

애니메이션이라는 매체가 갖고 있는 특성은 다양하다. 그런데 작가가 실제 방송에서 애니메이션을 활용하려는 의도는 ‘빛의 이중성’이라는 어려운 내용을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 [출제의도] 화자의 말하기 방식을 이해한다.

진행자는 교수에게 ‘이율배반’의 개념을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이 개념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간접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에 교수는 학생들이 일상에서 친숙하게 경험할 수 있는 동전을 던지는 상황을 활용하여 ‘이율배반’의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4. [출제의도] 발표에 필요한 사항을 평가한다.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문제의 원인을 제시하려고 구상했으나, 학생의 발표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다.

5. [출제의도] 듣기 전략의 적절성을 파악한다.

학생 4의 반응으로 보아, 발표를 듣고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6. [출제의도] 글의 유형에 따른 특성을 이해한다.

(가)는 신문 기사이고, (나)는 감상문이다. 신문 기사는 사실 정보를 객관적 태도로 전달한다. 그러나 감상문은 체험을 통해 얻은 새로운 정보뿐 아니라 글쓴이의 정서와 생각도 담고 있다.

7. [출제의도] 글을 쓰기 위해 구상한 내용이 글에 반영되었는지 파악한다.

(나)의 글쓴이는 전시회에서 해설자가 한 말 중, “왕의 용포를~드러내기 위해서였다.”는 말을 인용한다. 그러고는 ‘이 옷을~고충이 느껴졌다.’와 같이 느낀 점을 서술하였다.(ㄱ) 또 제1 전시관, 제2 전시관, 제3 전시관을 차례로 관람하며 보고 들은 내용을 순서대로 서술하였다.(ㄷ)

8. [출제의도] 조건에 따라 쓴 글을 파악한다.

㉣는 전시회에서 인상 깊게 본 ‘선비의 옷’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자신이 만들고 싶은 옷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전시회 관람이 자신에게

준 의미를 밝힌 것이다. 이때 직유법을 활용하여 ‘선비의 옷’을 ‘난초’에 비유하였다.

9. [출제의도] 글을 통해 작문의 특성을 파악한다.

[학생의 초고]가 그 내용상 게시판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작문이 목적성을 가지는 표현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0. [출제의도] 글의 수정 방안을 평가한다.

㉠ ‘작성되어진’은 ‘-되다’와 ‘-어지다’라는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었으므로, ‘작성된’(‘작성하다’의 피동 표현)으로 수정해야 한다.

11. [출제의도] 음운의 동화 현상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집안일’이 [지바닐]이 아니라 [지반닐]로 소리 나는 것은 사잇소리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합성 명사의 뒷말이 모음 ‘ㅣ’로 시작될 때 ‘ㄴ’이 하나 또는 둘이 겹쳐 나타나는 ‘ㄴ첨가’에 해당한다.

12. [출제의도] 사전을 활용하여 단어의 특성을 이해한다.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모였다.’의 ‘맞아’는 맞다²의 ‘2’의 용례에 해당한다.

13. [출제의도]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너는 이제 집에 돌아오면 혼났다.’의 ‘-았-’은 미래의 일을 표현하는 데 쓰였다.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의 특수한 용법으로 볼 수 있다.

14. [출제의도] 높임 표현을 이해한다.

이 담화에서 모시는 동작의 대상은 ‘할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이다. ‘모시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높여 표현하고 있다.

15. [출제의도] 부정문의 의미 차이를 이해한다.

㉠에는 짧은 ‘못’ 부정문과 긴 ‘못’ 부정문이 모두 올 수 있고, ㉢에는 ‘안’ 부정문이되 짧은 부정문이, ㉤에는 ‘안’ 부정문이되 긴 부정문이 적절하다.

[16~19] (예술) 박우찬, 『미술 이렇게 세상을 본다』

르네상스 이후 전개된 미술사에서의 경향을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대상을 인간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기 위해 르네상스의 화가들은 선 원근법, 공기 원근법 등의 기법을 따랐으며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장치를 활용하기까지 했다.

16.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

제시문은 르네상스 시기의 화가들이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 따랐던 미술상의 기법과 그들이 활용했던 장치를 중심 화제로 다루고 있다.

17.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경험적 원근법은 15세기 이전의 원근법을 가리킨다. 선 원근법은 15세기 르네상스 이후의 원근법을 가리킨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경험적 원근법이 선 원근법보다 앞서므로 ‘경험적 원근법이 선 원근법의 성과로 완성되었다’는 진술은 성립할 수 없다.

18.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에서 ‘먼 곳의 풍경을 진하고 선명하게’ 표현하는 것은 그리드의 사용과는 관련 없다.

19.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보기>의 화가 고갱은 ‘눈으로 본 것을 그리는 정도’의 그림’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순수한 감정과 정신’을 그리려 했다. 이로부터 고갱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려는 화가들에 대해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는 마음의 눈으로 화가의 내면세계를 표현해야 한다’고 비판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이끌어낼

수 있다.

[20~22] (기술) 정용택, 『미세 먼지 측정기술』

베타선 흡수법을 사용하는 미세 먼지 측정기의 작동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이 기기는 분립 장치, 여과지, 베타선 광원 및 감지기, 연산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미세 먼지 측정기는 대기 중 미세 먼지의 농도 측정 시 농도만 측정하는 것이지 그 성분과는 관련이 없다.

21.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질량 측정이 끝난 미세 먼지는 자동 이송 구동 장치에 의해 밖으로 배출된다는 내용이 셋째 단락 앞 부분에 언급되어 있다.

22.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마지막 단락 끝 부분을 보면 일정한 양의 공기가 일정한 시간 동안 시료 흡입부로 유입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질량 단위를 농도 단위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단위 시간당 측정된 양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23~25] (인문) 소홍렬, 『논리와 사고』

삼단 논법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를 주연 개념과 매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23.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첫 단락 세 번째 문장에서 논리학에서의 타당성은 명제의 참, 거짓과 관계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24.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한다.

매개념이 대전제와 소전제에서 모두 부주연되면 매개념이 두 전제에서 각각 대상의 서로 다른 부분을 지칭하게 되어 결론이 타당하게 도출될 수 없다.

25.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보기>는 매개념 부주연의 오류에 해당하므로 타당한 결론이 나올 수 없다.

[26~27] (과학) 김양한, 『음향학 강의』

인간이 듣는 소리에 대하여 음향학적으로 밝히고 마스킹을 소개하고 있다. 어떤 음들이 같은 음압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파수에 따라서 다른 크기로 느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26. [출제의도] 글의 세부적인 정보를 이해한다.

넷째 단락을 보면 순음의 음압이 30 dB로 같을 때 주파수가 클수록 음의 크기가 크게 느껴진다고 했으므로, 125 Hz인 순음이 더 작게 들린다.

27.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한다.

순음 C는 현재 <보기>의 그래프에서 순음 A의 마스킹 범위 안에 존재한다. 즉, C의 소리는 A의 소리와 겹치게 되면 들리지 않는다.

[28~30] (사회) 박정식·박중원, 『현대투자론』

비체계적 위험과 체계적 위험을 비교하고 이러한 위험 아래에서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28. [출제의도] 글의 표제와 부제를 파악한다.

첫 단락에서 비체계적 위험과 체계적 위험을 나누어 살핀 후 비체계적 위험 아래에서의 투자 전략과 체계적 위험 아래에서의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글의 중간부터는 베타 계수의 활용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29.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비체계적 위험은 기업의 특수 사정으로 인한 위험이므로 예측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둘째 단락 앞부분에 언급되고 있다.

30.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용하여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b)의 베타 계수는 1, (c)의 베타 계수는 2.2이므로 경기가 호황일 때는 (b)보다 (c)의 수익률이 더 클 것이다.

[31 ~ 33] (현대시) 박재삼, 「추억에서」
이 작품은 유년의 추억을 노래하고 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 고된 삶을 살아야 했던 어머니의 한을 은전, 별빛, 밤빛, 웅기 등의 반짝임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31. [출제의도] 시의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이 작품에는 의문형 문장이 여러 차례 쓰였다. 2연의 ‘울엄매의~한(恨)이던가.’와 4연의 ‘달빛 받은~것인가.’에는 고된 삶을 살았던 어머니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과 연민이 드러나 있다. 또 3연의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는 유년의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32. [출제의도]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한다.
‘진주 장터’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머니가 늦은 밤까지 장사를 하던 곳으로, 어머니의 한이 느껴지는 공간이다. ‘골방’은 오누이가 장사 간 어머니를 간절히 기다리던 공간이다. 오누이가 강물을 바라보며 귀갓길을 염려하는 모습은 연상하기 어렵다.

33. [출제의도] 시구에 담긴 의미를 이해한다.
㉠에서 웅기들이 달빛을 받아 빛나는 모습을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이라고 표현한 데서, 독자는 어머니가 소리 없이 흘리는 눈물을 연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어머니의 한을 느낄 수 있다.

[34 ~ 38] (현대소설) 이동하, 「밝고 따뜻한 날」
이 작품은 세대 간의 단절과 소외의 문제를 ‘색 구슬’이라는 상징적 소재로 드러내고 있다. 전후의 혼란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삶을 살아 온 주인공 나기배 씨는 자신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과 갈등하다 결국 삶의 의미마저 상실하게 된다.

34.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파악한다.
이 작품은 서술자가 나기배 씨를 중심으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서술자는 나기배 씨의 행동 뿐 아니라 심리까지 직접 제시한다. 특히 그의 심리는 ‘우리들의 손은 ~ 강인하였던가.’, ‘다시 땅속 깊이 ~ 감추리라.’처럼 내적 독백을 통해 제시되었다.

35.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를 이해한다.
어린 시절의 나기배 씨에게 색 구슬은 땅속에 은닉해 둘만한 보배였다. 그런데 아이들과의 구슬 놀이 후에는 색 구슬이 시궁창이나 쓰레기더미 같은 데로 모습을 감출 것이라 여기게 되었다.

36. [출제의도] 작품을 다른 매체를 활용하여 이해한다.
S#24에서 소년의 친구는 ‘부러운 표정’과 ‘간절’한 표정을 짓고 있고, S#26에서 두 아이는 ‘멍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처럼 두 장면에는 유사한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

37.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이해한다.
나기배 씨는 구슬 놀이를 거부하는 아이들에게 화를 낸다. 그러자 아이들은 나기배 씨를 홀로 남겨 둔 채 방안으로 들어가 텔레비전을 본다. 이처럼 구슬 놀이를 거부한 아이들을 대하는 나기배 씨의 태도는 결국

세대 단절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38. [출제의도]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성어를 파악한다.
나기배 씨는 구슬 놀이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과 갈등하다 결국 정원에 혼자 남게 된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나기배 씨가 멍한 상태가 되는데, 이런 상황을 표현하기 적절한 한자성어로는 ‘망연자실(茫然自失)’이 있다.

[39 ~ 41] (고전시가) 정훈, 「탄궁가」
이 작품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화자의 처지와 이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가난한 상황에 대한 실감나는 묘사, 가상의 청자와 대화하는 설정 등으로 인해 작가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가사로 평가된다.

39.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동편 이웃에 따비 얻고 서편 이웃에 호미 얻고’, ‘나라 빛과 이자는~어찌하여 차려낼꼬’, ‘시절이 풍년인들~몸을 어이 가릴고’ 등에서 대구의 방식으로 화자의 어려운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40.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를 이해한다.
㉢은 화자가 가난하여 나라 빛과 이자를 마련하기 어렵고, 부역과 세금을 감당하기 힘든 처지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여기에는 가난으로 인한 화자의 절망감이 담겨 있다.

41. [출제의도] 다른 작품과 비교한 감상의 적절성을 파악한다.
<보기>의 화자는 작품 전반에 걸쳐 가난하지만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었다. 이에 비해 윗글의 화자는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궁귀’와 대화하는 형식을 통해 가난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42 ~ 45] (고전소설) 작가 미상, 「매화전」
이 작품은 작자 미상의 한글 소설로, 조선을 배경으로 한 애정 소설이다. 이 작품은 핵심 내용은 남녀가 고난을 극복하고 결국 혼인하게 되는 사건인데, 사건 전개에 인물의 도술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42.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파악한다.
<중략> 앞부분에서는 조 병사와 최씨 부인의 대화, 조 병사와 연화동 사람들의 대화, 조 병사와 최씨 부인의 대화를 통해 사건이 전개된다. <중략> 이후에는 양유와 동자의 대화, 매화와 매화 어머니의 대화를 통해 사건이 전개된다.

43. [출제의도] 작품에 나오는 사건 내용을 파악한다.
양유는 동자에게 살려 달라고 애원하고, 동자는 양유가 살 수 있는 방도를 알려 준다. 그런데도 양유는 구름이 방에 비쳐도 범이 오는지 의심하며 두려움을 떨치지 못한다. 이처럼 양유는 동자가 나간 후에 호랑이를 물리칠 결심을 하지는 않는다.

44.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을 파악한다.
양유는 범에게 잡혀 어떤 방에 갇히게 된다. 양유는 그 방이 어떤 방인지 알지 못하며, 방밖엔 누가 있는 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양유가 매화가 방에 들어오기 전에 매화와 만나 재결합하게 될 것을 확신했다고 볼 수 없다.

45.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을 파악한다.
양유는 방밖에서 들어온 낭자가 매화인 줄도 모르고 살기 위해 낭자에게 사배(四拜)를 한다. 그런데 양유는 갑자기 방안으로 날아 들어온 ‘봉서’를 보고는 낭자를 유심히 보며 상대가 매화와 흡사하다고 혼잣말을 한다. 그 말을 들은 매화가 얼굴을 들어 양유에

대해 언급하고, 둘은 결국 상대의 정체를 파악한다.